

1편

웹툰으로 알아보는 국토지리정보원

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?



국토교통부
국토지리정보원



낯선 곳을 여행하거나
미팅이나 약속 장소를 찾아갈 때

여긴 어디?

???

나는 누구?

또는 이사할 집을 검색해야 할 때
사람들은 '지도'를 찾는다.



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
손쉽게 지도를 꺼내



어디든 갈 수 있고
어디든 볼 수 있는 것이다.




이 넓은 세상, 수많은 건물과 도로, 지형이
어떻게 지도 안에 다 담길 수 있을까?

한 번도 생각해본 적
없었는데...

지도는 어떻게
만들어지는 걸까?





그건 내가
가르쳐줄게!

지도요정이다!

우선 대한민국의 지도는
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
만들고 있어.

국토지리정보원은
지도를 만드는 국가기관이야.

지도는 정확하고 디테일해야 하기 때문에
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되고 있어!



첫 번째, 항공사진 촬영



실제적인 표현을 위해
항공기를 이용해서 국토의
사진을 촬영하고 있어.



두 번째, 기준점 측량

앞서 촬영한 항공사진에
지도의 좌표를 부여하는
작업이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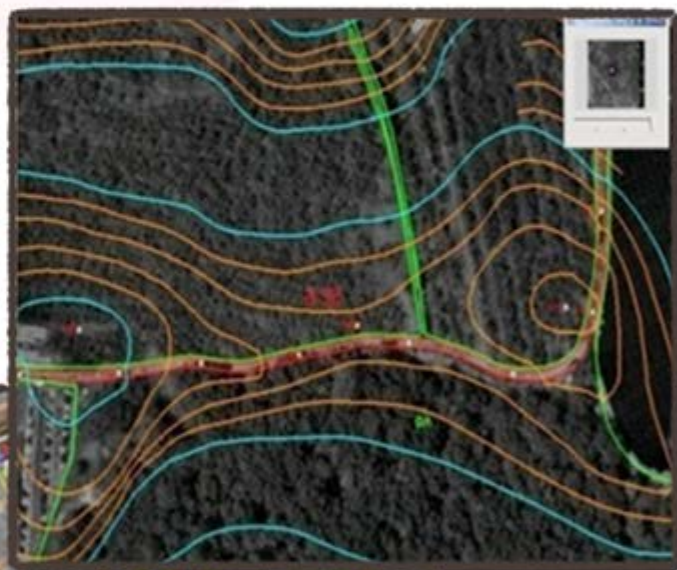


좌표 부여를 통해
실제 위치를 지도에 정확하게
표시하는 거구나!



세 번째, 도화

항공사진에 보이는 건물과 도로, 지형을
지도의 형태로 그리는 작업이지!



네 번째, 지리조사

마지막으로
건물의 종류나 명칭처럼
항공사진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을

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
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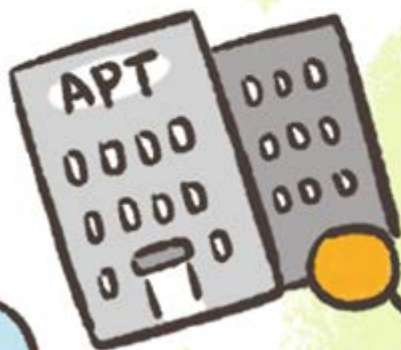


너희 집 앞에
아파트 새로 생겼지?

응. 맞아!



그렇게 변화된 지역의 정보도
수시로 수집하며 지도에 반영하고 있어!





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나
네비게이션등에 쓰이는 지도도

모두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를
바탕으로 하고 있는거야!



당연하다는 듯 쓰던 지도가
국토지리정보원의 노력과 기술로
만들어지는 거였구나!



국토교통부
국토지리정보원